



백화점·패션 ‘울상’
가전업계 ‘활짝’
기후변화에 희비
L1



Life

뷰티업계
가성비로
‘내수공략’
L2



청년에 기회를, 지구엔 희망을... 미래세대 위한 긍정적 변화



교보증권

교보증권은 선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에 집중한 증권사 중 하나다. ESG를 단순한 기업 의무가 아닌 일상과 철학에서 우러나는 실천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드림이’ 관련 프로젝트부터,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ESG 기업 문화까지 다각도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 이사회 직속으로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미래세대 지원 ▲지역사회 연계강화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 등 세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ESG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래세대의 꿈을 키워드림(Dream-up)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드림-업(Dream-up)’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드림업’은 소외계층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세대 장학 프로젝트다. 현재 4기째로 총 3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자기개발에 필요한 후원금 및 생활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드림업 4기’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드림업 4기에는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립준비청년 중 심사를 통과한 총 10명이 선정됐으며, 각각 3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이석기 대표이사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취약계층 아동 공부방 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드림이 홈케어링’을 통해 아동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도 제공한다. ‘드림이 홈케어링’은 지역사회 저소득가정을 방문해 도배·장판·방충망 보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용 가구를 임직원이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미래 꿈나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교보증권의 교육 중심 사회공헌 철학은 같은 그룹사인 교보문고의 이념과도 맞닿아 있다. 교보문고를 창립한 고 대산 신용호 선생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남겼다. 교보문고의 슬로건이자 교보그룹 전반에 흐르는 가치관이다. 교보그룹은 보험, 금융, 출판이라는 각기 다른 업종을 다루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람’과 ‘성장’을 중심으로 둔다. 교보증권 역시 금융이라는 전문성과 교보 그룹의 인문적 전통을 결합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지원하는 ES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교보증권 임직원들이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다.

/교보증권

소외계층 청년 지원 ‘드림-업’ 운영
장학생 선발, 후원금·생활지원금 전달
취약계층 아동에 쾌적한 공부방 제공

드림이 사회봉사단 창단, 소외이웃 도와
나눔문화 확산 ‘기부 키오스크’ 운영
15년간 창립기념일 맞아 봉사활동도

G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교보증권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 중심의 지역사회 공헌과 친환경 활동을 확대해 ESG경영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보증권은 2008년부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자 ‘드림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주기적인 사회공헌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드림이 봉사활동’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분기별 신청을 통해 연계복지시설을 방문해 환경개선·식사전달·물품후원 등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이다. 방학 중에는 결식아동을 위한 ‘드림이 따뜻한 밥상’을 12년째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임직원 및 가족 90여명이 참여해 간편식, 반찬, 간식 등이 담긴 식량 키트 280개를 제작하고 드림이 희망기부 결연아동에게 전달했다.

이 밖에도 일대일 아동결연 프로그램인 ‘드림이 희망기부’를 운영 중에 있다. ‘드림이 희망기부’는 국내외 어린이 대상 매칭 그랜트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2025년 현재 309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국내 281명, 해외 7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임직원과 만드는 나눔 문화

교보증권은 임직원 개인기부에도 적극적이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추진 중이다. 올해 3월에는 새로운 기부트렌드를 반영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본사 로비1층에 ‘기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설치했다. 기부키오스크는 ‘소장용 태그’로 기부 이력을 기록하고 최소 3000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임직원들의 기부 참여를 손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키오스크에는 쪽방

촌 거주·결손가정·중증장애 등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기부를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스토리를 접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이뤄진다.

더불어 임직원의 환경 보호에 대한 마인드 배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그린레이스’ 챌린지도 실시하고 있다. 임직원이 생활 속 탄소절감 행동을 하면 마일리지 적립되고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신설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꿀벌숲 조성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한다.

2010년부터는 창립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자는 의미로 창립기념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념일이 있는 한달 동안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김장김치 전달, 공원 밀원수 심기, 해피쿠키, 헌혈 등 나눔 문화를 실천한다. 2024년 창립기념 봉사활동에서는 자원 재순환 프로젝트인 ‘나눔채방’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런칭하고 임직원들이 기부한 도서 500여권의 판매 수익을 지역 내 장학금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활용해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3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생물다양성 증진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의샾강공원·여의도공원 생태계 보호 환경 개선 사업과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에는 임직원 30여명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여의도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진행하고 자연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와 자원재활용의 가치를 담은 업사이클링 카네이션을 제작해 어르신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교보증권은 신규 비영리조직(NPO, Non-Profit-Organization) 발굴과 협업을 확대하고 교보 관계사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1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왼쪽)와 송승규 드림메이커스 사무국장이 지난 2월 25일 진행된 ‘드림업 4기’ 장학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하윤원 교보증권 사회공헌 담당자와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설치를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7연승’ 2위 한화의 거센 돌풍…고공행진 이끄는 막강 선발진 /사진 뉴시스
▲LG, 에르난데스 일시 대체 외인으로 호주 출신 코엔 원 영입

▲‘발 부상’ 손흥민, 노팅엄전까지 결장 확정…회복에 집중
▲고진영, LPGA LA챔피언십 공동 7위…윤이나 16위

▲출판시장 지난해 총영업이익 36.4% 증가 1468억원…총매출액은 소폭 감소
▲‘침대 생활’ 고종의 덕수궁 서양 건물 활용법…‘황궁에 선 양관’展